

낮엔 빙상장·밤엔 호수공원 사람들로 꽉차

막바지 폭염 탈출 백태

달궀진 도심에서 막바지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고근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시민들의 '도심 피서법'도 각양각색이다.

'1994년 이후 최대 폭염'에 소방관들도 1300여 명이 넘는 물을 도로에 뿌려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

시험공부도 커피향 흐르는 시원한 카페에서

소방차 동원 40도 넘는 도로에 물뿌리기

주실내빙상장은 더위도 이기고 체력도 단련하는 여름 도심 피서지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로 인해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는 게 광주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지난달 입장객은 1만1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2명보다 많고 8월 빙상장을 찾은 입장객도 12일 까지 776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400명이 늘었다.

인근 열주 실내수영장도 지난달 9000명이 찾아오는 등 여름 도심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다.

달궀진 아파트를 벗어나 돛자리·텐트를 치고 열대야를 이기는 시민들로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체육공원, 풍암저수지, 삼수시민공원 등 도심 공원·산책로도 북적이고 있다.

이종순(여·45)씨는 "집도 가깝고, 굳이 먼곳을 가지 않아도 자연 풍 맞으며 운동하면 밤에 잠도 잘 온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보다 냉방이 잘되는 커피숍을 찾아 책을 읽는가 하면 시험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종합버스터미널, 말바우시장, 하남산단, 광주공원 등 광주 지역 185개소를 돌며 1299.7t의 물을 뿌리며 달궀진 아스팔트를 식히는 데 총력을 쏟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살수차를 동원, 대규모로 도로에 물을 뿌린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인 택시기사 지원금

가로채는 업주 처벌 강화

법인 택시기사에게 갈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도 담았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 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

곡성 압록 래프팅 체험



광주지역 낮 최고 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된 15일 청소년들이 곡성 섬진강 압록에서 래프팅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이종찬 한전 부사장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15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사기) 등으로 이종찬(57)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 JS전선이 신

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신고리 1건설소(1·2호기)의 기전 부소장을 맡고 있었고 2009년에는 신고리 1건설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승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8) 부장으로부터 "JS전선 케이블이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돼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종찬 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부사장은 또 원전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한국전력의 해외원전 개발처장으로 옮긴 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지원하는 '원전 EPC 사업처'의 처장을 거쳐 올해 6월 한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여름철 무증 환자 급증

7~8월에만 57만명 최다

무증으로 잘 알려진 '백선'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여름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2012년 백선 진료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7~8월에 병원을 찾은 사람 수는 월평균 57만9967명으로 전체 월평균 환자수인 38만2695명보다 약 20만명 많았다. 백선은 피부사상균이 피부 각질층, 모발, 손발톱 등에

침범해 허물이 벗겨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질환이다.

7~8월 여름철에는 기후가 고온다습해 피부사상균이 번식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246만8832명이다. 2008년 238만8995명의 환자가 집계된 이래 연평균 24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백선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이 중년층이었다. 50대 환자가 54만1천42명(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2만5천999명(21.3%), 30대 39만6천739명(16.1%)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3분 해질 19시 20분 달출 14시 58분 달몰 00시 26분

불볕더위 계속
맑은 가운데 무더위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25/35℃
목포	맑음	24/33℃
여수	맑음	25/31℃
나주	맑음	22/34℃
완도	맑음	24/34℃
구례	맑음	23/36℃
강진	맑음	22/33℃
해남	맑음	22/34℃
장흥	맑음	22/34℃
순천	맑음	21/34℃
영광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전주	맑음	25/35℃
군산	맑음	24/33℃
남원	맑음	22/35℃
홍산도	맑음	24/3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위험	매우높음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08:39	01: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여수	21:50	14:1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m	여수	03:36	09:5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여수	17:13	23: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씨						
최저/최고	24/35	24/34	25/33	24/33	24/32	24/32

'가마솥 한반도'에 이달말 태풍 소식

고온 영향 위력 강해..철저한 대비 필요

'가마솥 한반도'를 식힐 태풍이 이달 하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수 온도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태풍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조언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은 이날 오후 중국 장강 북부서쪽 약 300km 부근 육상에 상륙한 '우토르'(UTOR)까지 총 11개다. 모두 중국 남쪽이나 베트남 쪽으로 상륙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발달한 태풍 '솔릭'(SOULIK) 역시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중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열대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질 때 가장자리를 타고 북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중국 남부지방부터 한반도까지 강하게 형성돼 태풍의 길목이 차단됐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20일 이후 수축기에 들어가는 만큼, 이 시기에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장마가 끝난 뒤 태풍 '카논(KHANUN)', '템빈(TEMBIN)', '산바(SANBA)'가 우리나라를 관통했다. 이 가운데 템빈과 산바는 장마가 끝난 후 한 달여가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